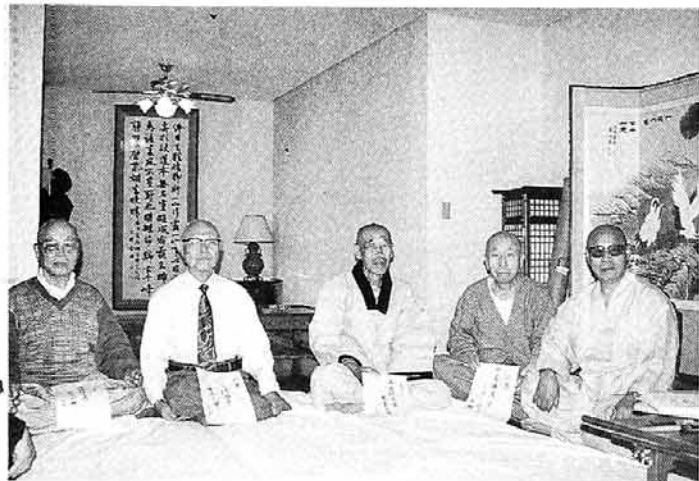


큰 스님 수행한담

바로 계 지키는 수행

“출가승 공부 안하면 큰 죄”
한암스님 가르침 평생 수행좌표



◇지난 91년 팔공산 파계사에서 고승스님(파계사 조실)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왼쪽부터 고승스님, 동화사 비로암 용명스님, 문경 봉암사 조실 범홍스님, 비홍스님, 육전 세심원장 무연스님.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란 7불통계(七佛通記)가 공언한 말씀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불교는 이 범위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계를 지켜 마음이 밝아질 때 비로소 참선·기도·염불·주력 등 온갖 수행방편이 효험을 발휘합니다. 8만4천가지 수행방편에 속하는 8만가지 진언과 1천7백가지 공안(公案), 20여가지 관법 등이 들어 있습니다. 깨침의 도는 하나일 뿐 근기에 따라 수행방편을 선택할 뿐입니다.

결국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 자세와 정성이 더 중요한 겁니다. 심지어는 과학과 철학도 일념(一念)만 있으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이 됩니다. 마음만 밝으면 과학·철학도 큰 진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작은 발견은 지식으로 되지만 큰 발견은 마음이 밝아져야 이뤄지는 것이 참선의 원리와 다를 바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깨달기 전에는 근기의 차이가 있지만 깨닫고 난 후에는 역시 들어 아닙니다. 물론 깨달음에도 신통(神通)이 있고 없고, 분래면목을 얻다나 아는가 하는 많은 단계가 있습니다만...

나는 주로 참선정진을 하였습니다. 화두는 한암스님이 내리신 '무(無)자 화두'를 들었지요. 수행자들이 화두를 어렵게 느끼지만 화두는 '의심하는 것' 이외에 딱 게 아닙니다. 내 사형 보문(1906~1956)스님은 단 1주일만에 깨쳤습니다. 그만큼 분별심이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어린이가 처

지며, 회색에서 흰색으로 변할수록 보살심이 발현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불교에는 참선이나 염불 진언 등 수많은 수행방편이 있지만 모두 같은 길입니다. 대개는 상근기가 화두를 들고, 근기가 조금 모자라면 관법(觀法; 위빠사나)을 행하고 근기가 더 약하면 진언이나 염불을 해요.

이중 진언이나 염불은 상인의 힘으로 깨치는 겁니다. 또 근기가 약한 사람이 무자 화두를 들면 망상이 많아져요. 꺾어진 시절까지 생각이 날 정도로 망상이 끊어 없지요. 그러나 개인의 체질에 맞는 방법을 택해 정진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종착점은 같으니까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불보살의 나라가 됩니다. 서양인들도 다부어 불교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원호스님 포대화상 달마스님 한암스님 습득거사 등 선정에 들어계신 고승들이 다시 이 세계에 몸을 나무실 것 입니다. 수명도 160~170세로 늘어나고 신장도 커집니다. 착한 사람만이 살 수 있는 세계가 옵니다. 그런 세계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착하게 살면서 자신을 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국가와 민족, 세계가 화평하게 되는 겁니다.

2년전 제주도 천왕사에서 100일간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를 발원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통일이 눈앞에 다가오니 이를 준비하지는 의미에서죠. 수년안에 통일될 것이니, 남한에서는 식량을 많이 준비해둬야 할 겁니다. 물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과도기로서 엄청난 혼란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지만 모든 불자들이 마음을 모은다면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요즘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정치는 인과(因果)를 아는 황회정승 같은 분이 해야 합니다. 녹을 먹을 때는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았고 벼슬을 떠나는 농사를 지어먹으며 청빈하게 사신 분, 그런 분이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정

“정치하는 사람은 인과를 알아야 합니다
봉사정신으로 사리사욕 채우지 말고
권세위해 남 속이는 일 하지 말아야지요”

럼 순진무구한 마음상태가 중요하다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통일이 되어야만 선정삼매에 들 수 있고, 선정에 들 수 있어야만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염불삼매도 마찬가지이죠. 통일에 들어 모든 탐욕과 색욕을 끊고 선정에 들 수 있다면 몇달, 아니 수십·수백년을 먹지 않고도 지낼 수 있어요.

이런 수행이 쌓이면 내중에는 자신의 법신(法身)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밝은 달밤에 자신의 그림자를 달빛에 비추어 볼 때, 그림자가 검으면 아직 욕심이 많은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박순달

4대와 原子

기원전 4세기경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사물을 질료와 형상으로 보았다. 즉 사물은 가능성에 있는 질료가 형상에 의해 현실대로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유로 변한 것과는 다르다고 하였다.

실체(實體)라는 것은 영원불변이 아니라 4개의 원인에 의해 생성소멸하는 것이라고 했다. 네가지 원인이란 질료인(質料因), 운동인(運動因), 목적인(目的因), 형상인(形相因)이다.

현대 자연과학의 물질생성론은 빅뱅(big bang)이론인데 1929년 허블은 대폭발로 우주가 생겼다는 이 설을 제시하였다. 과거 우주는 한 점으로 응축되어 있었는데 100~200억년전에 어떤 원인에 의해 폭발되어 지금도 그 폭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는 여러 가지로 발견되고 있다. 대폭발설에 의하면 폭발후 0.01초후에는 천억도가 되고 전자, 양전자, 광자, 중성미자등

함께 작용하여 산출하는 인자인 구유인(俱有因), 비슷한 다른 종류의 원인을 돕는 원인인 동류인(同類因), 서로 조화하여 동일 목적으로 향하는 원인인 상응인(相應因), 잘

못을 일으키는 편견등에 관련된 원인인 편행인(偏行因), 원인과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원인인 이숙인(異熟因)이다. 4緣은 결과를 산출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인연(因緣), 능숙인과 같은 적극적인 원인인 증상연(增上緣), 무엇이 어날 때의 객관적인 조건인 소연연(所緣緣), 서로서로 일어나게 하는 원인인 등무간연(等無間緣)이다. 인연에는 6인중 5가지원인 즉, 구유인, 동류인, 상응인, 편행인, 이숙인을 연결시키고 있다. 그리고 물체란 성(成), 주(住), 괴(壞), 공(空)의 4상(四相)을 되풀이 한다. 이 물질생성론은 그리스시대 물질생성론과 유사하다. 현대 자연과학의 빅뱅이론은 우

빅뱅이론, 우파니샤드철학과 유사

불교물질관 “생멸증감 없는 색즉시공”

이 생성되고 0.11초가 되면 3백억도로 식고 중성자, 양성자가 생성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우주에는 점점 소립자로 채워지다가 10만년이 지나면 4000도로 식어 수소가 생기면서 물질이 생기기 시작하고 드디어 빛도 생겨나게 되었다.

우파니샤드철학에서 우주발생은 태초에 유일한 유(有)가 있어 그것이 욕심을 일으켜 지수화중의 4대를 만들고 여기서 더 복잡한 복합물을 만들고 이 속에 그 유가 명(命)의 상태로 들어가 명색(名色)이 되고 일체가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하나(一)가 변하여 많은 것(多)이 되고 그 하나가 많은 것 속에 들어 가 본질이 된다는 입장이다. 이것을 전법설이라고 하며 또한 원인(一) 속에 결과(多)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뜻에서 인종유과(因中有果)론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인간의 자아(아트만)와 우주의 법(梵)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파니샤드철학에서 어느정도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자연과학에서는 1774년 라보아제가 질량불변의 법칙을 제시한다. 그는 밀폐된 용기에 115그램의 수은과 1.4리터의 공기를 넣고 가열하였다. 그랬더니 수은의 표면이 붉게 변하고 용기안의 공기가 줄었다. 다시 붉은 이 물질을 가열하여 종전의 기체만큼 다시 만들 수 있었다. 이같이 하여 얻은 기체를 처음 수은을 가열하였을 때 남아 있던 공기와 섞어 보았더니 종전의 공기와 같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하여 물질은 그 형태가 변해도 구성원자는 변하지 않으며 전체 질량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이 질량불변의 법칙도 어떤 일정한 공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지 우주 전체가 그런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한편 불교에서는 유위법(有爲法)의 입장에서 물체에 생멸이 있다고 설명하지만 무위법(無爲法)은 생멸이 없는 것이 중감도 없다고 한다. 이러한 물질을 여여색(如如色)이라 하고 또 진여색(眞如色)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불보살론(物不遷論)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 진여색, 불보살론을 자연과학이 설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서울대교수·산업공학과)

8만진언·1천7백 공안 모두 돌아닌 하나

“마음만 밝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됩니다”

정(定)에 들 수 있고, 정에 들어가 혜(慧)가 생기기 때문이지요. 부처님께서도 “계으로써 스승을 삼으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아요. 계·정·혜 삼학을 함께 닦는 것은 부처님 당시부터 내려 온 오랜 전통인데, 계가 그 중심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선가(禪家)에서 선정의 힘으로 앉아 죽고 서서 죽을 수 있는 것도 이같은 수행이 쌓이면 쉬운 일이지요. 반면 스님들이 계를 제대로 못지키면 열반에 들 때 고생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질 수 있고, 통심으로 돌아가야 온갖 분별심을 끊을 수 있어요. 분별심을 끊고 일념(一念)이어서 선정삼매(禪定三昧)든지 염불삼매에 들 수 있거든요. 요즘처럼 계를 지키기 어려운 세상에서는 재가불자들도 절제하며 정도껏 계를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불은 물론 삶을 보람되게 살기 위해서도 늘 선(善)하게 살아야 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세속에서 계를 지키며 사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만이 선정에 들 수 있고 도(道)를 깨칠 수 있습니다. 이견 빈말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에게서 측은의 재앙조차 비껴갑니다. 칠십 평생의 수행이력에서 내가 몸소 체험한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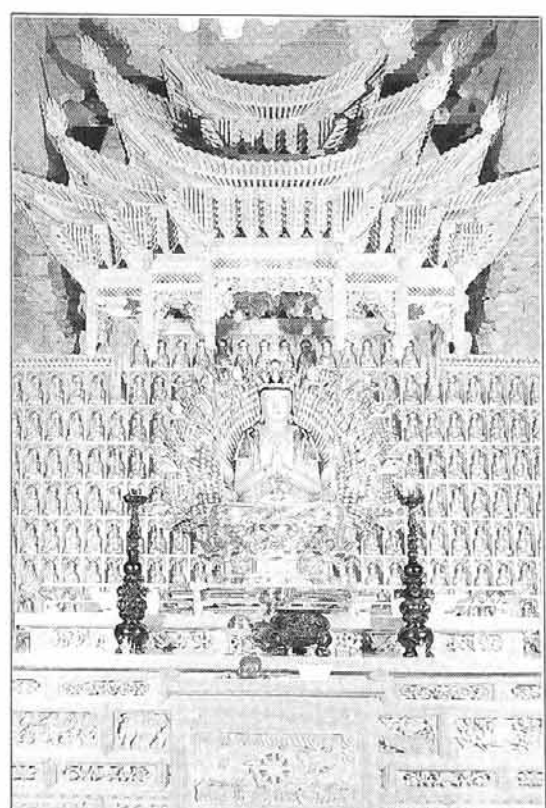
‘제악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敎)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힘써 행하며 그 뜻을 스스로 깨끗이 하라. 이것이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담집...) 등등
•불교 목공예품-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 사 무 실 (02) 738-8447~8
■공 장 (051) 804-8907
■부산사무실 (051) 556-0541~3

대표 이진형 합장